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D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 화 식, 배 봉 진, 박 명 호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A study on the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Hwa-Sik Lee, Bong-jin Bae, Myung-Ho Park
Dep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reer barriers of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Methods: This study targeted 490 college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The survey about career barriers on this study consisted of 45 questions and was scored with 5-points per question. The corrected data was analyzed by SAS V8 for Windows.

Results: The difference analysis of career barriers shows that differences exist depending on gender($p < .01$) and serving military service($p < .05$). Especially, female students(2.69) and male students(2.65) who didn't serve the military are more susceptible to career barriers. In the sub factors of career barriers, differences exist depending on and in order of gender, serving military service, experience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the college, day and night, the affiliation of highschool graduated from, and hometow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 factors of career barriers and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manifested 'Lack of self assurance'(0.84), 'Sense of physical inferiority'(0.76), 'Relationship with other important people'(0.73) and 'Lack of information on occupation' in order.

Conclusion: In the factors affecting non-decision on the career, 'Lack of self assurance'(=0.2465) is the highest in terms of influence, followed by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0.1801) and 'Lack of information on occupation' (=0.1391).

○Key words : Career barrier, dental technology

교신저자	성명	이 화 식	전화	053-320-1322	E-mail	lihisi@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번지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접수일	2010. 7. 31		수정일	2010. 8. 20		확정일	2010. 9 7

I. 서론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개인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진로제도가 바뀌면서 진로결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고교입시에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되면서 학생의 장래희망과 관련해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하며 진로를 결정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한겨레, 2010).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등학교 때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을 준비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위한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원창, 2006).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취업포털 인쿠르트에 의하면 2009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학기간을 조사한 결과 졸업까지 평균 6년(72.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졸업예정자 10명 중 4명이 졸업을 유예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졸업유예 기간이 늘어난 것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영어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공부를 위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많았다(한국경제TV, 2010).

대학생 상당수는 자신의 적성과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활에서의 진로결정은 우리 일생의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직업세계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로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재도, 2009).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여성들의 진로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의 분류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최숙현, 2007). Swanson과 Woitke는 '진로향상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개인의 내부 또는 환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하였다(최숙현, 2007; 정홍원, 2002).

선행연구들을 보면 진로선택 및 결정과 진로장벽 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다고 해서 진로결정을 방해하

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진로결정의 신중성을 나타내거나 진로결정의 현실적인 대처행동을 마련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진로결정과정의 일부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김선중, 2005).

본 연구에서는 D-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의 진로장벽들을 살펴보고, 진로결정의 하위요인들이 진로 미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각 개인의 현재의 진로결정 여부, 그리고 진로결정 장애요인들을 여러 변인(성별, 학년, 연령, 출신고교계열, 출신지역, 군복무유무, 재수경험, 주·야)별로 분석하여 치기공과 재학생 진로문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취업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D-대학의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 5월 15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치기공과 재학생 65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650부의 설문 중 590부(90.77%)를 수거하여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문항에 결측 값이 있는 것을 제외한 490부(75.38%)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장벽 검사는 김은영(2001)이 개발한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 탐색 장애 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채점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아주 그렇다'는 5점으로 하였으며, 문항 14, 22, 25번은 역채점하였다. 채점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게 진로장애를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장벽 검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0.92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김은진

(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0.87이었으며, 장순정 (2007)연구에서는 Cronbach=0.931 이었다.

진로장벽 45개 문항을 직각 회전 방식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대

인관계 어려움', '나이문제', '타인과의 관계', '흥미 부족', '주위환경변화 불안', '건강·성적불안',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등 1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진로장벽 검사의 하위척도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진로장애	자기명확성 부족	1,4,16,21,24,26,30,31,34,35,43	11	0.855911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8,13,27,28,37,38	6	0.785894
	대인관계 어려움	2,11,12,22,32	5	0.795284
	나이문제	9,19,29,33,39	5	0.791371
	타인과의 관계	23,40,41,42	4	0.736616
	흥미부족	5,10,15	3	0.617129
	주위환경변화 불안	3,6,36,44	4	0.607548
	건강·성적 불안	18,20	2	0.546487
	경제적 어려움	7,17,45	3	0.517343
	직업정보 부족	14,25	2	0.238117
계		45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진로장벽 검사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 프로그램 Window SA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에 사용된 검사는 항목에 따른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논문에서의 유의수준은 $p < 0.05$ 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진로장벽의 내적일치도(신뢰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뢰도 분석(Cronbach α),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분석에는 직각 회전방식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의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t-test, 이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간의 수준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Scheffe 방식의 사후검정(Ad-hoc)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은 490명으로 남학생(58.57%)이 여학생(41.43%)보다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36.73%), 3학년(33.88%), 2학년(29.39%)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23세(46.73%), 출신고교 계열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77.14%)가 많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출신지역은 영남권역(77.34%)의 학생들이 응답하였으(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성별	남자	287(58.57)
	여자	203(41.43)
학년	1학년	180(36.73)
	2학년	144(29.39)
	3학년	166(33.88)
연령	19세 미만	151(30.82)
	20 ~ 23세	229(46.73)
	24세 이상	110(22.45)
출신고교계열	일반계	378(77.14)
	전문계	94(19.18)
	기타	18(3.67)
출신지역	대구시	138(28.16)
	경상북도	103(21.02)
	경남·부산시	138(28.16)
	서울·경기도	49(10.00)
	기타(도)	62(12.65)
군복무	유	209(42.65)
	무	281(57.35)
재수경험	유	53(10.82)
	무	437(89.18)
주야구분	주간	376(76.73)
	야간	114(23.27)
	계	490(100.00)

2. 진로장벽 차이 분석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은 성별, 군복무 유무, 재수경험의 유무, 주야 구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을 위해서 t-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학년, 연령, 출신지역 F-검정, 일원 분산법, 사후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진로장벽 차이 수준 t-검정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자	287(58.57)	2.56	0.48	-3.21	0.0014
	여자	203(41.43)	2.69	0.44		
군복무	유	209(42.65)	2.56	0.48	-2.03	0.0432
	무	281(57.35)	2.65	0.46		
재수경험	유	53(10.82)	2.64	0.39	0.52	0.6060
	무	437(89.18)	2.61	0.48		
주야구분	주간	376(76.73)	2.63	0.45	1.53	0.1274
	야간	114(23.27)	2.55	0.52		

표 4. 진로장벽 차이 수준 F-검정 및 사후 검정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Ad-hoc
학년	1학년	180(36.73)	2.57	0.47	2.36	.0957
	2학년	144(29.39)	2.60	0.49		
	3학년	166(33.88)	2.68	0.46		
연령	19세 미만	151(30.82)	2.65	0.45	1.21	.3001
	20~23세	229(46.73)	2.58	0.48		
	24세 이상	110(22.45)	2.63	0.46		
출신고교계열	일반계	378(77.14)	2.62	0.46	0.07	
	전문계	94(19.18)	2.61	0.50		
	기타	18(3.67)	2.58	0.44		
출신지역	대구시	138(28.16)	2.64	0.46	1.79	.1292
	경상북도	103(21.02)	2.69	0.47		
	경남, 부산시	138(28.16)	2.53	0.47		
	서울, 경기도	49(10.00)	2.60	0.44		
	기타(도)	62(12.65)	2.62	0.48		

성별(p<.01), 군복무 유무(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2.69), 군복무경험이 없는 학생(2.65)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3.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차이 분석

1) 진로장벽의 자기명확성 및 신체적 금전적 열등감의 차이분석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의 자기명확성과 신체적 금전적 열등감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기명확성 부족 항목에서는 성별(p<.0001), 군복무 유무(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2.95±0.62), 군복무경험이 없는 학생(2.88±0.62)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

체적·금전적 열등감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나 자기명확성 부족보다는 지각정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진로장벽의 대인관계 어려움 및 나이문제의 차이 분석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장벽에 있어 대인관계 어려움 및 나이문제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항목에서는 여학생(2.69±0.66), 군복무경험이 없는 학생(2.65±0.66), 19세 미만(2.66±0.62)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이문제는 남자(2.34±0.76), 군복무경험이 있는 학생(2.43±0.75),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2.48±0.71), 3학년(2.41±0.73), 24세 이상(2.64±0.67)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진로장벽의 자기명확성 및 신체적·금전적 열등감의 차이분석

구 분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M ± SD	t(F)	p	M ± SD	t(F)	p	
성별	남자	2.67 ± 0.62	-5.04	.0001	2.27 ± 0.70	-1.34	0.1795
	여자	2.95 ± 0.62			2.35 ± 0.66		
군복무	유	2.66 ± 0.63	-3.97	.0001	2.28 ± 0.72	-0.520	.6066
	무	2.88 ± 0.62			2.32 ± 0.67		
재수경험	유	2.76 ± 0.57	-0.31	0.7605	2.30 ± 0.63	-0.03	0.9736
	무	2.79 ± 0.64			2.30 ± 0.70		
주야	주간	2.81 ± 0.62	1.87	0.0627	2.33 ± 0.69	1.41	0.1599
	야간	2.69 ± 0.66			2.22 ± 0.68		
학년	1학년	2.77 ± 0.64	1.69	0.1849	2.21 ± 0.61	2.33	0.0984
	2학년	2.73 ± 0.68			2.35 ± 0.79		
	3학년	2.85 ± 0.59			2.36 ± 0.67		
연령	19세 미만	2.89 ± 0.60	2.74	0.0657	2.29 ± 0.64	0.02	0.9827
	20~23세	2.74 ± 0.65			2.30 ± 0.75		
	24세 이상	2.74 ± 0.64			2.31 ± 0.62		
출신고교계열	인문계	2.81 ± 0.64	1.40	0.2487	2.30 ± 0.70	0.05	0.9510
	전문계	2.70 ± 0.65			2.31 ± 0.69		
	기타	2.69 ± 0.51			2.34 ± 0.39		
출신지역	대구	2.82 ± 0.62	0.84	0.5024	2.33 ± 0.74	1.00	0.4071
	경북	2.85 ± 0.65			2.39 ± 0.69		
	경남·부산	2.72 ± 0.67			2.22 ± 0.66		
	서울·경기	2.72 ± 0.50			2.34 ± 0.75		
	기타	2.80 ± 0.66			2.25 ± 0.59		

3) 진로장벽의 타인과의 관계 및 흥미 부족의 차이분석
 치기공과학생의 진로장벽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 및 흥미부족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7와 같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항목에서는 여학생(2.75±0.71), 군복무경험이 없는 학생(2.72±0.71), 주간학생(2.65±

0.72), 19세 미만(2.76 ± 0.72), 경상북도(2.85±0.78)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부족의 항목에서는 남자(2.34±0.76)의 경우만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진로장벽의 대인관계 어려움 및 나이문제의 차이분석

구 분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문제			
	M ± SD	t(F)	p	M ± SD	t(F)	p	
성별	남자	2.45 ± 0.67	-3.94	0.0001	2.34 ± 0.76	2.27	0.0238
	여자	2.69 ± 0.66			2.19 ± 0.74		
군복무	유	2.41 ± 0.68	-3.86	0.0001	2.43 ± 0.75	3.83	0.0001
	무	2.65 ± 0.66			2.17 ± 0.74		
재수경험	유	2.51 ± 0.71	-0.42	0.6732	2.48 ± 0.71	2.08	0.0384
	무	2.55 ± 0.67			2.25 ± 0.76		
주야	주간	2.57 ± 0.68	1.38	0.1695	2.28 ± 0.76	-0.01	0.9941
	야간	2.47 ± 0.66			2.28 ± 0.74		
학년	1학년	2.49 ± 0.61	1.03	0.3573	2.08 ± 0.73	10.11	.0001
	2학년	2.58 ± 0.79			2.36 ± 0.76		
	3학년	2.58 ± 0.64			2.41 ± 0.73		
연령	19세 미만	2.66 ± 0.62	3.41	0.0338	2.06 ± 0.74	20.70	.0001
	20~23세	2.50 ± 0.71			2.24 ± 0.74		
	24세 이상	2.48 ± 0.66			2.64 ± 0.67		
출신고교계열	인문계	2.55 ± 0.67	0.06	0.9414	2.24 ± 0.75	1.78	0.1698
	전문계	2.53 ± 0.70			2.39 ± 0.79		
	기타	2.57 ± 0.76			2.40 ± 0.69		
출신지역	대구	2.53 ± 0.68	1.00	0.4079	2.35 ± 0.78	1.56	0.1841
	경북	2.61 ± 0.65			2.34 ± 0.75		
	경남·부산	2.47 ± 0.71			2.16 ± 0.72		
	서울·경기	2.57 ± 0.68			2.35 ± 0.91		
	기타	2.63 ± 0.64			2.22 ± 0.63		

4) 진로장벽의 주위환경변화 불안 및 건강, 성적불안의 차이분석
 치기공과학생의 진로장벽에 있어 주위환경변화 불안 및 건강, 성적불안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8와 같다.
 주위환경변화 불안 항목에서는 학년(3학년 2.83 ±

0.58)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건강 및 성적불안에서는 여학생(2.25 ± 0.84)이 남학생(2.11 ± 0.72)보다 높게 나타나고 전문계 출신학생(2.39 ± 0.85)들이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진로장벽의 타인과의 관계 및 흥미 부족의 차이분석

구 분	타인과의 관계			흥미 부족			
	M ± SD	t(F)	p	M ± SD	t(F)	p	
성별	남자	2.51 ± 0.73	-3.51	0.0005	2.59 ± 0.77	-2.18	0.0301
	여자	2.75 ± 0.71			2.74 ± 0.70		
군복무	유	2.47 ± 0.74	-3.78	0.0002	2.60 ± 0.79	-1.18	0.2374
	무	2.72 ± 0.71			2.68 ± 0.71		
재수경험	유	2.50 ± 0.69	-1.11	0.2696	2.72 ± 0.64	0.77	0.4422
	무	2.62 ± 0.74			2.64 ± 0.76		
주야	주간	2.65 ± 0.72	2.13	0.0341	2.65 ± 0.73	0.09	0.9257
	야간	2.48 ± 0.75			2.64 ± 0.81		
학년	1학년	2.61 ± 0.72	2.54	0.0797	2.60 ± 0.77	2.01	0.1348
	2학년	2.51 ± 0.81			2.60 ± 0.77		
	3학년	2.69 ± 0.67			2.74 ± 0.68		
연령	19세 미만	2.76 ± 0.72	4.88	0.0080	2.66 ± 0.73	0.21	0.8120
	20~23세	2.54 ± 0.78			2.66 ± 0.77		
	24세 이상	2.53 ± 0.61			2.61 ± 0.72		
출신고교계열	인문계	2.65 ± 0.73	2.27	0.1047	2.65 ± 0.74	0.28	0.7597
	전문계	2.49 ± 0.77			2.61 ± 0.76		
	기타	2.43 ± 0.55			2.74 ± 0.76		
출신지역	대구	2.54 ± 0.74	5.76	0.0002	2.60 ± 0.71	1.14	0.3389
	경북	2.85 ± 0.78			2.76 ± 0.74		
	경남 · 부산	2.44 ± 0.68			2.58 ± 0.70		
	서울 · 경기	2.60 ± 0.55			2.73 ± 0.87		
	기타	2.75 ± 0.75			2.66 ± 0.80		

5) 진로장벽의 경제적 어려움 및 직업정보 부족의 차이분석
 치기공과학생의 진로장벽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 및 직업정보 부족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경제적 어려움 항목에서는 군복무를 한 학생(3.26 ±

0.72)과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3.40 ± 0.79)이 재수경험을 하지 않는 학생과 군복무를 하지 않는 학생보다 지각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부족에서는 모든 항목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진로장벽의 주위환경변화 불안 및 건강·성적불안의 차이분석

구 분		주위환경변화 불안			건강·성적 불안		
		M ± SD	t(F)	p	M ± SD	t(F)	p
성별	남자	2.69 ± 0.66	-1.12	0.2629	2.11 ± 0.72	-1.99	0.0476
	여자	2.76 ± 0.65			2.25 ± 0.84		
군복무	유	2.69 ± 0.65	-0.85	0.3966	2.12 ± 0.74	-1.22	0.2230
	무	2.74 ± 0.66			2.21 ± 0.80		
재수경험	유	2.83 ± 0.60	1.28	0.2001	2.14 ± 0.65	-0.30	0.7659
	무	2.70 ± 0.66			2.18 ± 0.79		
주야	주간	2.72 ± 0.63	0.40	0.6865	2.18 ± 0.78	0.56	0.5768
	야간	2.70 ± 0.71			2.14 ± 0.75		
학년	1학년	2.69 ± 0.67	4.45	0.0122	2.18 ± 0.80	0.04	0.9593
	2학년	2.62 ± 0.69			2.16 ± 0.82		
	3학년	2.83 ± 0.58			2.17 ± 0.71		
연령	19세 미만	2.76 ± 0.69	1.20	0.3020	2.24 ± 0.79	0.86	0.4244
	20~23세	2.67 ± 0.62			2.13 ± 0.80		
	24세 이상	2.76 ± 0.66			2.17 ± 0.70		
출신고교계열	인문계	2.75 ± 0.63	2.61	0.0746	2.11 ± 0.73	5.59	0.0040
	전문계	2.65 ± 0.68			2.39 ± 0.85		
	기타	2.43 ± 0.86			2.36 ± 1.08		
출신지역	대구	2.78 ± 0.67	1.75	0.1379	2.22 ± 0.81	0.88	0.4750
	경북	2.79 ± 0.64			2.12 ± 0.79		
	경남·부산	2.69 ± 0.66			2.11 ± 0.73		
	서울·경기	2.55 ± 0.64			2.19 ± 0.65		
	기타	2.65 ± 0.59			2.29 ± 0.84		

4. 진로장벽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전체 지각정도와 진로장벽 하위요인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진로장벽 전체의 지각정도와 진로장벽 하위요인들 간에 서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0.84)이 진로장벽 전체 지각정도에 가장 연관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0.76), '타인과의 관계' (0.73) 순이며, '직업정보 부족' 요인(0.24)이 가장 적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하위요인간의 연관성은 '직업정보 부족' 요인과 '나이문제', '흥미부족', '주위환경변화 불안', '경제적 어려움' 요인 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경제적 어려움' 과 '건강·성적 불안' 요인 간에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 부족'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 요인 간에는 부적상관 관계가 존재하여 어느 한 요인이 증가하면 다른 요인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3.17)이 지각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이 '직업정보 부족' (2.96), '자기명확성 부족' (2.79)순으로 나타났다.

5. 진로장벽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진로장벽이 진로 미결정에 주는 영향
진로장벽 전체(45문항)가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진로 결정 여부 항목을 종속변수(0: 진로 미결정, 1: 진로결정)로 하고 진로장벽 전체 점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가 표 11와 같다.

진로장벽 점수가 진로 미결정에 영향($\chi^2=34.1269$,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미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y}_1 = \hat{p}_i = p_r (Y=\text{진로미결정} | x) = \frac{1}{1 + e^{-(4.6220 + 1.4460 \text{진장벽점수})}}$$

진로장벽점수가 커질수록 진로 미결정 확률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9. 진로장벽의 경제적 어려움 및 직업정보 부족의 차이분석

구 분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M ± SD	t(F)	p	M ± SD	t(F)	p	
성별	남자	3.18 ± 0.73	0.23	0.8174	2.92 ± 0.72	-1.69	0.0918
	여자	3.16 ± 0.77			3.02 ± 0.65		
군복무	유	3.26 ± 0.72	2.14	0.0328	2.92 ± 0.70	-1.27	0.2029
	무	3.11 ± 0.76			3.00 ± 0.68		
재수경험	유	3.40 ± 0.79	2.38	0.0178	2.97 ± 0.63	0.11	0.9159
	무	3.15 ± 0.74			2.96 ± 0.70		
주야	주간	3.17 ± 0.76	-0.37	0.7143	2.98 ± 0.69	0.96	0.3367
	야간	3.20 ± 0.69			2.91 ± 0.69		
학년	1학년	3.19 ± 0.82	0.12	0.8847	3.01 ± 0.77	2.24	0.1077
	2학년	3.18 ± 0.74			3.01 ± 0.70		
	3학년	3.15 ± 0.67			2.87 ± 0.56		
연령	19세 미만	3.20 ± 0.78	0.98	0.3959	3.01 ± 0.75	0.62	0.5368
	20~23세	3.13 ± 0.74			2.95 ± 0.65		
	24세 이상	3.24 ± 0.72			2.93 ± 0.68		
출신고교계열	인문계	3.15 ± 0.73	1.34	0.2637	2.93 ± 0.64	1.89	0.1526
	전문계	3.28 ± 0.75			3.09 ± 0.82		
	기타	3.06 ± 1.03			2.97 ± 0.87		
출신지역	대구	3.30 ± 0.69	1.80	0.1270	2.98 ± 0.71	0.12	0.9757
	경북	3.20 ± 0.74			2.98 ± 0.65		
	경남·부산	3.09 ± 0.74			2.95 ± 0.72		
	서울·경기	3.08 ± 0.90			2.91 ± 0.63		
	기타	3.10 ± 0.73			2.96 ± 0.70		

2)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장벽의 10개의 하위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stepwise변수 선택방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SLS=0.2, SLE=0.1)으로 분석한 결과(표

12)와 같이 10개의 하위용인들 중에서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값이 커질수록 진로 미결정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자기명확성 부족' (=0.2465)이 가장 영향력

이 높고 ‘대인관계 어려움’ (=0.1801), ‘직업정보 부족’ (=0.1391)순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진로장벽과 진로장벽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진로장벽										
	전체	자기 명확성 부족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문제	타인과의 관계	흥미부족	주위환경 변화불안	건강·성적불안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전체	1.00	0.84*** <.0001	0.76*** <.0001	0.72*** <.0001	0.63*** <.0001	0.73*** <.0001	0.64*** <.0001	0.68*** <.0001	0.54*** <.0001	0.36*** <.0001	0.24*** <.0001
자기명확성 부족		1.00	0.44*** <.0001	0.55*** <.0001	0.31*** <.0001	0.57*** <.0001	0.56*** <.0001	0.58*** <.0001	0.37*** <.0001	0.56*** <.0001	0.24*** <.0001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1.00	0.46*** <.0001	0.61*** <.0001	0.54*** <.0001	0.40*** <.0001	0.43*** <.0001	0.45*** <.0001	0.22*** <.0001	0.20*** <.0001
대인관계 어려움				1.00	0.33*** <.0001	0.54*** <.0001	0.40*** <.0001	0.45*** <.0001	0.35*** <.0001	0.18*** <.0001	0.13*** 0.0042
나이문제					1.00	0.39*** <.0001	0.27*** <.0001	0.35*** <.0001	0.48*** <.0001	0.15*** 0.0007	0.02 0.7139
진로장벽 타인과의 관계						1.00	0.39*** <.0001	0.44*** <.0001	0.30*** <.0001	0.15*** 0.0007	0.13*** 0.0041
흥미부족							1.00	0.38*** <.0001	0.31*** <.0001	0.26*** <.0001	0.04 0.3781
주위환경 변화불안								1.00	0.22*** <.0001	0.25*** <.0001	0.07 0.1049
건강·성적불안									1.00	0.03 0.5349	0.15*** 0.0008
경제적 어려움										1.00	-0.08 0.0815
직업정보부족											1.00
평균	2.61	2.79	2.30	2.55	2.28	2.61	2.65	2.72	2.17	3.17	2.96
표준편차	0.47	0.63	0.69	0.68	0.75	0.73	0.74	0.65	0.77	0.75	0.69

*p < .05, **p < .01, ***p < .001

표 11. 진로장벽이 진로 미결정에 주는 영향분석

변인	B (Estimate)	χ^2	β (Std. Estimate)
(상수)	-4.6220		
진로장벽	1.4460	34.1269***	0.3746

***p<0.001

표 12.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변 인	B (Estimate)	χ^2	β (Std. Estimate)
(상수)	-5.1407		
자기명확성 부족	0.7053	11.9527**	0.2465
대인관계 어려움	0.4826	7.5078**	0.1801
직업정보 부족	0.3663	5.6162*	0.1391

*p<0.05, **p<0.01

IV. 고 찰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치기공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조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타 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요인 및 진로장벽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와 비교하고자 한다.

진로장벽 전체의 지각정도와 진로장벽 하위요인들 간에 서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0.84)이 진로장벽 전체 지각정도에 가장 연관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0.76), ‘타인과의 관계’ (0.73) 순이며, ‘직업정보 부족’ 요인(0.24)이 가장 적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재도(2009)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분석에서 성별, 학과 계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성별(p<.01), 군복무 유무(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 군복무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숙현(2007)은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미래불안, 자기명확성 부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자기명확성 부족과 나이 문제에서 동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홍원(2002)은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결과는 진로장벽 지각정도 차이에서는 여자대학 학생보다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진로장벽 하위요인간의 연관성은 ‘직업정보 부족’ 요인과 ‘나이문제’, ‘흥미부족’, ‘주위환경변화 불안’, ‘경제

적 어려움’ 요인 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 과 ‘건강·성적 불안’ 요인 간에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부족’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 요인 간에는 부적상관 관계가 존재하여 어느 한 요인이 증가하면 다른 요인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3.17)이 지각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이 ‘직업정보 부족’ (2.96), ‘자기명확성 부족’ (2.79)순으로 나타났다. 10개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자기명확성 부족’ (=0.2465)이 가장 영향력이 높고 ‘대인관계 어려움’ (=0.1801), ‘직업정보 부족’ (=0.1391)순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치기공과 재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재학생 진로향상 프로그램운영에 초석이 되고자 D-대학의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 650명에게 설문문을 의뢰하여 문항에 결측 값이 있는 것을 제외한 490명을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진로장벽 검사는 45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게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감’,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문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흥미 부족’, ‘주위환경 변화불안’, ‘건강 성적불

안',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10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진로장벽의 차이분석은 성별($p < .01$), 군복무 유무($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2.69), 군복무경험이 없는 학생(2.65)의 경우가 진로장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차이는 성별로 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 문제', '타인과의 관계', '흥미부족', '건강?성적 불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복무에서는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 문제', '타인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재수경험에서는 '나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고, 주야구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요인이,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이 문제', '주위환경변화 불안' 요인에서, 연령에서는 '대인관계 어려움', '나이 문제', 출신고교계열에서는 '건강·성적 불안' 요인, 출신지역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요인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3.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전체 지각정도와 진로장벽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0.84)이 진로장벽 전체 지각정도에 가장 연관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신체적?금전적 열등감' (0.76), '타인과의 관계' (0.73) 순이며, '직업 정보 부족' 요인(0.24)이 가장 적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보부족'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 요인 간에는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3.17)이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이 '직업정보 부족' (2.96), '자기명확성 부족' (2.79)순으로 나타났다.

4.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0개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값이 커질수록 진로 미결정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자기명확성 부족' (=0.2465)이 가장 영향력이 높고 '대인관계 어려움' (=0.1801), '직업정보 부족' (=0.1391)순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이용하여 D-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은영.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은영.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계성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 연구, 1435-1451, 2007.

김은진.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재도. 대학생의 진로결정 분석.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논문집, 10, 1, 15-26, 2009.

이원창.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대학진학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장순정.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정홍원.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숙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